



AI PERSONAL FINANCIAL ROBOADVISOR

주간투자전략 [4/20~4/24]

호르무즈 변수 재 부각 국면, 이번 주는 지수보다 종목 선택이 중요하다

- 휴전 기대와 재 봉쇄 리스크가 공존, 결국 시장은 다시 실적으로 수렴
- 실적이 확인된 주도주와 후발주를 구분하는 종목 장세 연출 가능성
- 반도체 중심 코어 유지, 증권, 금융, 바이오, 내수 회복주 선별
- 실적 상향, 구조적 수요, 밸류업, 혹은 명확한 사업 모멘텀 보유 종목

협상 기대와 재차 경색 가능성이 공존하는 고 변동성 박스권 장세

휴전 기대와 재 봉쇄 리스크가 공존, 결국 시장은 다시 실적으로 수렴

이번 주(4/20~4/24) 한국 증시는 지정학 리스크가 완전히 끝난 장세가 아니라, 협상 기대와 재차 경색 가능성이 동시에 살아 있는 고변동성 박스권 장세로 판단한다. 미국과 이란은 19 일 기준 협상 진전 가능성을 함께 언급했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통제와 재 개방 가능성, 미국의 봉쇄 유지 여부, 이란의 강경 대응 가능성이 동시에 남아 있어 뉴스 한 줄에 유가와 환율이 다시 흔들릴 수 있는 구조다. 따라서 이번 주 시장의 핵심은 “전쟁 종료 베팅”이 아니라 유가·달러 충격을 견디면서도 실적으로 버틸 수 있는 업종이 무엇인가에 있으며, 국내 증시는 지정학 변수가 상단을 제한하고, 반도체와 실적 상향 업종이 하단을 지지하는 구조가 유력하다.

실적이 확인된 주도주의
종목 장세 연출 가능성

실적이 확인된 주도주와 후발주를 구분하는 종목 장세 연출 가능성

첫째, 미국-이란 협상 재개 여부와 호르무즈 해협 통제 수준이다. 둘째, 한국 4 월 1~20 일 수출과 반도체 중심 수출 모멘텀 확인이다. 셋째, SK하이닉스 실적과 미국 기술주 실적 시즌 진입이다. 넷째, 달러와 금리의 방향 전환 여부다. 이번 주는 단순한 지수 상승보다 실적이 확인된 주도주와 실적 기대가 새로 붙는 후발주를 구분하는 종목 장세가 더 중요하다.

반도체 코어 유지한 가운데
증권, 금융, 바이오 선별 매수

반도체 중심 코어 유지, 증권, 금융, 바이오, 내수 회복주 선별

투자전략은 반도체 중심 코어는 유지하고, 유가 민감 변수는 매일 점검하며, 놀림목에서 금융·증권·선별 바이오·내수 회복주를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적절하다. 해협 재 봉쇄 관련 뉴스가 다시 강해질 경우에는 추격매수를 멈추고 현금 비중을 소폭 높여야 하지만, 반대로 협상 재개와 봉쇄 완화 신호가 확인되면 시장은 다시 6,200 선 상단 테스트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번 주는 시장 전체를 공격적으로 추격하기보다, 실적이 확인된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압축하는 전략이 더 적절하다

실적 상향, 구조적 수요, 밸류업,
혹은 명확한 사업 모멘텀 보유 종목

투자 유망 섹터 및 관심 종목

이번 주 유망 섹터는 반도체, 금융·증권, 선별 바이오, 내수 회복주, 일부 인프라/통신장비다. 관심 종목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KB 금융, 한국금융지주, 한샘, 인벤티지랩, 파마리서치, ISC, HD 건설기계, RFHC 를 제시한다. 공통점은 단순 테마가 아니라 실적 상향, 구조적 수요, 밸류업, 혹은 명확한 사업 모멘텀이 있다는 점이다.

[금주 5 대 핵심 관전 포인트 등]

**금주 KOSPI
5,900 ~ 6,350 pt**

이번 주 코스피 예상 밴드는 5,900 ~ 6,350 포인트로 제시한다.

지난주 코스피는 6,191.9로 1주일 기준 5.68% 상승했고, 코스닥은 1,170.0로 6.99% 올랐다. 이미 전쟁 초기 공포는 상당 부분 되돌렸지만, 해협 재통제와 협상 교착 뉴스가 다시 나올 경우 단기 변동성은 충분히 확대될 수 있다.

반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코스피 12개월 선행 PER이 아직 극단적 과열로 보기는 어려운 구간이어서, 조정이 나오더라도 실적 업종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상존한다.

**미국-이란 협상과
호르무즈 해협**

금주 주요 이슈로는 첫째, 미국-이란 협상과 호르무즈 해협이다.

17일 로이터는 해협이 일시 재 개방됐지만 미국의 해상 봉쇄 종료는 전제 조건이라고 전했고, 18~19일에는 다시 통제 강화와 협상 진전 발언이 엇갈렸다.

즉 시장은 "전면전 종료"가 아니라 "협상은 살아 있으나 봉쇄 리스크도 살아 있는 상태"를 가격에 반영해야 한다. 이 변수는 한국 증시에서 에너지 가격, 운임, 원달러 환율, 성장주 할인율을 동시에 흔드는 최상위 변수다.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

둘째 이슈는 반도체 실적 시즌이다.

삼성전자는 1분기 잠정 영업이익 57.2조원으로 시장 기대를 웃돌았고, AI 데이터센터용 메모리 가격 상승과 HBM 공급 확대가 실적을 밀어 올렸다.

이 흐름이 SK 하이닉스 실적으로 이어지면 반도체는 단순 테마가 아니라 다시 한 번 지수 레벨 자체를 올리는 업종이 된다. 실제 국내 이익 전망 자료에서도 최근 반도체는 2026년 영업이익 변화폭 1위 업종으로 반도체 업종이 확인된다.

유동성의 귀환

셋째 이슈는 유동성과 위험 선호 회복 여부다.

최근 시장은 "유동성 환경의 완화"로 해석할 수 있으며, 반도체, 에너지 업종으로 대전환 및 코스닥 성장주 등 3대 전략 축 중심으로 상승하고 있다.

실제 미국 단기 유동성 환경 완화와 정부지출 재개 가능성, 대기자금 증가가 확인되는 만큼, 지정학 뉴스만 다소 진정되면 한국 증시는 다시 종목 중심 상승장으로 복귀할 여지가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시장 전체보다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 풀림 장세가 더 유력하다.

원달러 환율과 금리 방향

넷째 이슈는 환율과 금리의 미세한 방향 변화다. 원달러 환율은 1,400원 후반대에서 하방경직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 10년물 금리도 4.20~4.35% 박스권으로 등락이 전망된다.

즉 달러 급등 국면은 진정됐지만, 금리와 환율이 시장에 우호적으로 크게 꺾인 것도 아니다. 이번 주는 금리 하락 자체에 베팅하기보다, 환율 안정 여부를 관찰하며 업종별 상대 강도를 가려내는 장세로 이해하는 편이 적절하다.

**어느 업종이 실적이
계속 상향되는가**

다섯째 이슈는 이익 상향의 확산 여부다. 최근 1주일 기준 2026년 이익 변화율 상위 업종은 2차전지, 반도체, 증권, 화장품·의류, 보험 업종 순으로 이익이 상향되고 있다.

반대로 운송, 유틸리티, 철강·비철, 방산은 단기 기대가 한 차례 앞서간 뒤 조정 압력이 반영되는 구간으로 집계된다. 따라서 이번 주 핵심은 "무엇이 많이 오른 업종인가"보다 "무엇의 실적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가"다.

[주간 상승, 하락, 변수 요인]**상승 요인**

첫째, 반도체 실적 상황 강도가 매우 높다.

삼성전자는 이미 잠정 실적으로 업황 방향을 숫자로 보여줬고, SK 하이닉스 역시 실적 기대가 높다. 여기에 중국까지 AI 투자에 가세하면서 토콘 사용량 확대가 메모리 수요를 다시 키우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번 주 한국 증시의 가장 강한 펀더멘털은 반도체이며, 이는 단순 주가 모멘텀이 아니라 코스피 전체 EPS를 끌어올리는 핵심 축이다.

둘째, 유동성 및 위험선호 회복 가능성이 남아 있다.

최근 미국 단기 유동성 경직이 완화되며, 성장주와 고베타 테마주의 반등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 미국 증시가 전쟁 국면에서도 기술주 실적을 반영하며 신고가 흐름을 이어갔고, 한국 시장도 반도체와 성장주 쓸림이 이어지는 구간이다. 즉 지정학 노이즈가 주춤하기만 해도, 한국 시장은 다시 주도주 재 가속 구간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셋째, 이익 상황 업종이 반도체 밖으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 증권, 화장품·의류, 일부 2차전지 업종 등의 이익 상황이 확인되고 있으며, KB 금융·한국금융지주·리가캠바이오 등으로 투자 유망종목군이 넓어지고 있다. 이는 시장이 한 업종만으로 오르는 장이 아니라, 반도체가 방향성을 만들고 다른 업종이 수익률을 보완하는 다중축 장세로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하락 요인

첫째,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가 재차 확대되면 유가가 다시 급등할 수 있다.

AP 통신과 로이터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해협 통제 리스크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이 시장 변동성 요인으로 남아 있다. 유가가 다시 급등하면 이는 한국 시장에서 곧바로 인플레이션 우려, 금리 부담, 성장주 할인율 상승으로 변질 수 있다.

둘째, 달러 강세와 환율 상방 재개 가능성이다.

아직 원달러가 완전히 안정됐다고 보기 어렵고, 협상 뉴스가 꼬이면 원화는 다시 약세로 돌아설 수 있다. 환율 상승은 수출주에는 일부 긍정적일 수 있지만, 외국인 자금에는 부담이며 특히 고밸류 성장주에는 부정적이다. 이번 주는 위험선호 회복만 볼 것이 아니라 외국인 수급의 연속성도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

셋째, 높아진 기대에 비해 결과가 미달할 때 조정 폭이 커질 수 있다.

삼성전자 서프라이즈 이후 시장 눈높이는 높아졌고, ISC 같은 소부장 종목도 목표주가 상황이 이어질 만큼 기대가 선 반영되고 있다. 이런 구간에서는 실적이 양호해도 기대에 못 미치면 주가가 조정을 받을 수 있다. 결국 이번 주는 좋은 종목을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대가 과도하게 선 반영된 종목을 높은 가격에 추격 매수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변수 요인

첫째, 미국-이란 2차 협상과 봉쇄 완화 속도다. 이번 주 시장은 이 모순된 신호 사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협상 재개가 확인되면 시장은 빠르게 위험자산 선호를 회복하겠지만, 해협 통제 장기화가 확인되면 반도체 외 성장주의 속도는 둔화될 수 있다.

둘째, 한국 수출과 반도체 모멘텀의 지속성이다. 최근 시장은 반도체 업종이 수출과 투자 사이클의 핵심 축이라는 점을 확인해 주고 있다.

셋째, 개별 종목의 실적과 이벤트 가시성이다. 이번 주는 시장 전체보다 종목별 강약이 더 중요하다. 따라서 이번 주는 업종보다 종목 선택의 정밀도가 수익률을 가를 가능성이 높다.

[금주 투자 유망 섹터]

1) 반도체

가장 우선하는 섹터는 반도체다.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서프라이즈가 업황 방향을 숫자로 보여줬고, SK 하이닉스 실적 기대도 높다. 여기에 반도체 업종은 최근 1 주일 이익 변화폭 1 위 업종이고, 최근 중국의 AI 토큰 사용량 확대가 동아시아 메모리 수출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 주 지수 방향은 결국 반도체가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2) 금융·증권

두 번째는 금융·증권이다. 변동성 구간에서는 실적과 주주환원이 있는 금융주가 방어력을 제공하고, 거래대금이 살아 있는 국면에서는 증권주가 이익 레버리지를 가진다. 특히 KB 금융은 NIM 상승과 불확실성 완화가 포인트이고, 한국금융지주는 브로커리지와 운용자산 확대 기대가 살아 있다. 반도체만 들고 가기 부담스러운 투자자에게는 금융·증권이 가장 현실적인 보완 축이 될 수 있다.

3) 선별 바이오

세 번째는 선별 바이오다. 업종 전체 접근보다 종목 선택이 중요하다. 파마리서치는 리쥬란의 유럽 진출과 브라질 독점공급 계약으로 해외 확장 스토리가 명확하고, 인벤티지랩은 BI 추가 계약과 3 분기 본계약, CDMO 매출 기대가 포인트이다. 다만, 금리 부담이 남아 있어 바이오 전반을 강하게 보긴 어렵지만, 개별 모멘텀이 있는 종목은 예외적으로 선별 접근할 만하다.

4) 내수 회복·소비 리오프닝

네 번째는 내수 회복주다. 한샘은 아파트 거래량 회복이 시차를 두고 매출 증가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으며, 자사주 소각 의무화 논리까지 겹치고 있다. 아직 강한 턴어라운드 업종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금리 충격만 재 확대되지 않으면 저평가 정상화 관점에서 볼 수 있다. 이번 주에는 경기민감 소비주 전체보다, 구조조정 이후 회복 여력이 남은 한샘 같은 선택형 종목도 관심을 가져줄 만하다.

5) 인프라·통신장비

다섯 번째는 인프라·통신장비다. HD 건설기계는 신흥국 인프라·광산 투자 회복과 해외 판매 확대가 포인트이고, RFHIC 는 신규 주파수 할당과 중국 장비 규제 강화가 동사에 수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구간에서는 이런 실물 투자 연동 업종이 성장주 대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여줄 수 있어 보완 종목으로 관심이 필요하다.

[주요 관심 10 종목 및 포인트]

관심 10 종목

삼성전자(005930): AI 수요, DDR4 가격 상승, NAND 업황 개선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으며, 1 분기 잠정 실적이 시장 기대를 웃돌며 핵심 주도주 지위를 확인한 종목이다.

SK 하이닉스(000660): HBM 수요가 여전히 견조하고 23 일 실적 발표를 앞둔 가운데, 삼성전자 호실적 이후 메모리 업황 모멘텀의 직접 수혜주로 재 부각되는 종목이다.

KB 금융(105560): NIM 상승, 비용 안정, 불확실성 완화가 겹치며 펀더멘털과 주주환원 측면에서 리딩뱅크 역할이 가능한 대표 금융주다.

한국금융지주(071050): 국내 증시 거래대금 확대에 따른 브로커리지 개선과 IMA 이후 운용자산 확대 기대가 살아 있는 대표 증권주다.

한샘(009240): 아파트 매매거래량 회복이 매출로 전이될 시점에 진입하고 있고, 자사주 소각 의무화 논리가 밸류에이션 재평가를 자극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인벤티지랩(389470): BI 추가 계약에 따른 제형 전달 완료, 3 분기 본계약 가능성, CDMO 매출 기대가 동시에 붙는 이벤트형 바이오 종목이다.

파마리서치(214450): 리쥬란의 유럽 진출 본격화와 브라질 독점 공급 계약으로 해외 확장 스토리가 강화된 실적형 미용의료주다.

ISC(095340): AI 가속기-ASIC 용 고부가 테스트 소켓 수요가 늘며 목표주가 상향과 실적 서프라이즈 기대가 이어지는 소부장 핵심주다.

HD 건설기계(267270): 신흥국 인프라·광산 투자 회복, 호주 등 해외 판매 확대로 외형 성장 기대가 살아 있는 실물 투자 수혜주다.

RFHIC(218410): 신규 주파수 할당과 중국 장비 규제 강화 국면에서 통신장비 업종 내 상대적 저평가 매력을 가진 종목이다.

[표 1] 금주 주요 투자 유망 관심 10 종목

코드	종목명	업종	시총 (십억원)	주가(원)	주간상승률
005930	삼성전자	반도체	1,262,796.2	216,000	+4.85
000660	SK하이닉스	반도체	803,928.3	1,128,000	+9.83
105560	KB금융	은행	60,513.6	162,300	+2.53
071050	한국금융지주	증권	14,321.6	257,000	+6.42
009240	한샘	건설·건축관련	933.1	39,650	+0.89
389470	인벤티지랩	건강관리	829.8	62,500	+1.13
214450	파마리서치	건강관리	3,246.8	312,500	+3.48
095340	ISC	반도체	4,854.1	229,000	-11.07
267270	HD건설기계	기계	7,815.0	162,900	+0.12
218410	RFHIC	IT하드웨어	2,477.4	93,300	+1.52

자료: 핀릿 리서치센터

[금주 주요 글로벌 경제 발표 일정]

소비와 제조업이 강하게
버티는 구간

이번 주 미국 경제 데이터는 성장 둔화 우려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소비와 제조업이 예상보다 견조하게 버티는 구간으로 해석된다.

이는 연준이 단기간에 공격적 완화로 전환하기 어렵게 만드는 조합이다.

특히 최근 근원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PCE)가 전월 대비 0.4%, 전년 대비 3.0%로 여전히 높고, 연준의 공식 목표가 PCE 2%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주의 강한 소비와 안정적 고용은 금리 인하 기대를 일부 제약할 가능성이 높다.

소비 예상보다 강하고
제조업은 버티며
서비스업은 간신히 유지

이번 주 미국 경제지표는 소비는 예상보다 강하고, 제조업은 버티며, 서비스업은 간신히 확장 구간을 유지, 고용은 여전히 급랭이 아닌 완만한 냉각 구간에 머물 것으로 요약된다.

가장 강한 신호는 3 월 소매판매다. 미국 Census 기준 3 월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1.4%, 근원 소매판매는 1.3%로 제시되어, 직전치 0.6%, 0.5%를 크게 웃돌았다. 최근 공식 발표에서도 2 월 소매판매가 0.6% 증가로 반등한 바 있는데, 이번 3 월 수치는 가계 소비가 아직 쉽게 꺾이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할 수 있다.

[표 2] 금주 주요 글로벌 경제 데이터 발표 일정 등

일자	이벤트	예측	이전	시사점
4/21 화	소매판매 MoM (3월)	1.4%	0.6%	소비가 예상보다 매우 강해 경기 하단이 단단하다는 신호
	근원 소매판매 MoM (3월)	1.3%	0.5%	기조 소비도 크게 반등해 내수 버팀목이 예상보다 강함
4/22 목	신규 실업수당청구	212K	207K	절대 수준이 낮아 노동시장 급랭보다 완만한 냉각으로 해석
	서비스 PMI (4월)	50.1	49.8	서비스업은 겨우 확장권에 복귀했지만 모멘텀은 여전히 약함
	제조업 PMI (4월)	52.5	52.3	제조업은 확장 구간을 유지하며 서비스보다 상대적으로 견조

자료: 인베스트닷컴, 핀릿 리서치센터

서비스 둔화
제조업 상대적 선방

반면 서비스업 체감은 강하지 않을 전망이다. 4 월 서비스 PMI 는 50.1 로 직전 49.8 대비 소폭 반등하여, 확장과 위축의 기준선인 50 을 겨우 웃도는 수준이다.

S&P Global 은 3 월 말 미국 서비스업 활동이 위축 국면에 들어섰다고 설명했는데, 이번 수치는 그 충격에서 소폭 회복했더라도 모멘텀이 매우 약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반대로 제조업 PMI 는 52.5 로 직전 52.3 보다 소폭 개선되어, 제조업은 적어도 확장 구간을 이어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최근 Reuters 와 S&P Global 이 지적한 “서비스 둔화, 제조업 상대적 선방” 구도와 대체로 일치한다.

고용은
냉각은 진행되지만
침체형 급락은 아님

고용은 여전히 무너지지 않고 있다. 신규 실업수당청구건수는 212K 로 예측치 210K 보다 조금 높지만, 직전 219K 보다는 낮다.

최근 공식·통신사 해석도 20 만 건 안팎의 청구 수준을 low layoff, 즉 해고 수준이 낮은 상태로 평가한다. 따라서 이번 주 고용 신호는 “냉각은 진행 중이지만 침체형 급락은 아니다”가 핵심이다.

[금주 주요 글로벌 기업 실적 발표 일정]

이번 주는 실적 시즌의 본격 확산 구간이다. 금주 핵심은 금융·보험(처브, 캐피탈원, CME, 블랙스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항공·우주·산업재(GE 에어로스페이스, RTX, 노스롭그루먼, 보잉, 하니웰, 유나이티드렌탈, 노퍽서던, SLB), AI·반도체·엔터프라이즈 IT(램리서치, 텍사스인스트루먼트, 서비스나우, 인텔, KLA, IBM), 헬스케어(유나이티드헬스그룹, 인튜이티브서지컬, 다나허, 애보트, 보스턴사이언티픽, 길리어드, HCA), 소비·미디어(테슬라, 필립모리스, 넷플릭스, 펩시코, P&G, 컴캐스트)로 압축된다.

실적 시즌 본격 확산 구간

가장 큰 축은 여전히 AI-산업 설비투자과 경기 민감 업종의 충돌이다. 최근 ASML 과 TSMC 의 강한 전망으로 AI 지출 붐이 여전히 유효하고, 이 흐름은 이번 주 램리서치(LRCX), KLA(KLAC), 서비스나우(NOW), IBM(IBM), 텍사스인스트루먼트(TXN) 실적 해석에 그대로 연결된다. 즉 이번 주 기술주는 단순 매출보다 고객의 투자 지속성, 주문 가시성, 하반기 가이드스가 더욱 중요하다.

두 번째 축은 금융주를 통한 경기 판단이다. 미국 대형 은행들이 순이자이익과 투자은행 수수료 개선으로 1 분기 실적은 양호하지만, 유가와 지정학 변수 때문에 하반기 경기와 대출 성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환경이다. 따라서 이번 주 일정표에 포함된 캐피탈원(COF), CME 그룹(CME), 블랙스톤(BX), 아메리칸 익스프레스(AXP), 나스닥(NDAQ)도 같은 프레임에서 봐야 한다. 숫자가 좋아도 가이드스가 보수적이면 금융주는 오히려 경기 둔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세 번째 축은 방어주와 실물 소비의 질이다. 넷플릭스는 2026년 광고 매출 약 30억 달러와 연간 매출 가이드스 507 억~517 억 달러를 제시했고, 펩시코는 미국 내 스낵 가격 인하로 다시 물량 회복을 노리고 있다. 따라서 넷플릭스(NFLX), 펩시코(PEP), 필립모리스(PM), P&G(PG), 컴캐스트(CMCSA)는 경기 둔화 국면에서도 가격 결정력, 구독 기반, 브랜드 파워가 유지되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종목군이다.

[표 3] 금주 주요 글로벌 실적 발표 기업 등

일자	종목
4/21(화)	GE에어로스페이스(GE), 유나이티드헬스그룹(UH), RTX(RTX), 인튜이티브서지컬(ISRG), 다나허(DHR) 처브(CB), 캐피탈원(COF), 노스롭그루먼(NOC), 3M(MMM)
4/22(수)	테슬라(TSLA), 램리서치(LRCX), GE버노바(GEV), 필립모리스(PM), IBM(IBM), 텍사스인스트루먼트(TXN) AT&T(T), 보잉(BA), CME그룹(CME), 서비스나우(NOW), 보스턴사이언티픽(BSX), 무디스(MCO) TE커넥티비티(TEL), 킨더모건(KMI), 일리번스헬스(ELV), 유나이티드렌탈(URI)
4/23(목)	인텔(INTC), KLA(KLAC), 아메리칸익스프레스(AXP), 써모피셔사이언티픽(TMO), 길리어드사이언스(GILD) 하니웰(HON), 록히드마틴(LMT), 뉴몬트(NEM), 컴캐스트(CMCSA), 블랙스톤(BX), 프리포트맥모란(FCX) 디지털리얼티(DLR), 베이커휴즈(BKR), 나스닥(NDAQ)
4/24(금)	P&G(PG), HCA(HCA), SLB(SLB), 노퍽서던(NSC)

자료: 인베스트닷컴, 핀릿 리서치센터

하반기 전망을 어떻게 말하느냐가 관건

결론적으로 이번 주는 AI 투자 지속성은 기술주가, 경기의 온도는 금융과 산업재가, 소비의 방어력은 미디어·필수소비재가 검증하는 주간이다.

시장은 실적 서프라이즈 자체보다, 하반기 전망을 얼마나 자신 있게 제시하는지에 더 크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

핀릿 리서치센터



Analyst 김영진

現 독립리서치 핀릿 대표 & 연구위원

금융투자분석사, 투자자산운용사

헤지펀드 운용전문인력

부동산투자 자산운용사

매경, 한경 등 주요 언론사 Best Analyst 출신

미래에셋자산운용 리서치/자산배분 본부장

하이자산운용 헤지펀드 운용실장

KB 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대행

NH 투자증권 / LG 투자증권 /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위원 등 역임

Compliance Notice

- 이 자료는 투자를 유도할 목적이 아니라 개인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이 자료 작성자 김영진은 자료 제공일 현재 이 자료에 언급된 해당 기업의 주식 및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작성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선행매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 작성자는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로서 개별적인 투자상담과 자금운용이 불가능합니다.
- 이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투자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당사는 이 자료를 전문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이 자료는 당사 저작물로서 모든 지식재산권은 당사에 귀속되며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 이 자료를 당사 임직원 외의 자로부터 입수하였을 경우, 자료 무단 제공 및 이용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 제공자 및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고지사항

이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이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자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 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